

미디어/광고

CJ E&M, CJ 오쇼핑에 흡수합병

통신/미디어

Analyst 정지수
02. 6098-6681
jisoo.jeong@meritz.co.kr

CJ오쇼핑, 17일 CJ E&M 흡수합병 계획을 발표

17일 CJ오쇼핑은 계열사 CJ E&M에 대한 흡수합병 계획을 발표. 합병비율은 CJ오쇼핑과 CJ E&M이 1대 0.41이며, 합병기일은 2018년 8월 1일,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22일

합병 배경은 순수한 사업적 시너지 창출

합병 전과 합병 후 지분을 변동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합병의 배경은 지배구조 재편이 아닌 순수한 사업적 시너지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. CJ오쇼핑과 CJ E&M 합병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밝힌 합병 시너지로는 ① CJ E&M의 미디어 솔루션과 CJ오쇼핑의 상품 기획력을 결합한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, ② 중국, 베트남, 태국 등 콘텐츠 IP 활용이 가능한 해외 지역 마켓 플레이스 확대, 그리고 ③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장소/시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융복합 사업모델 확대 등

합병 계획 반영 시 CJ E&M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

이번 흡수합병을 통해 CJ오쇼핑은 한계에 봉착한 흡쇼핑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사업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, CJ E&M은 늘어난 현금을 활용해 콘텐츠의 커머스 확장이라는 뚜렷한 목표로 합병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. 새로운 합병법인이 출범하더라도 글로벌 OTT 시장의 확대 기류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받는 콘텐츠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 기업 가치 상승은 지속될 전망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1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1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정지수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